

大行禪

한마음, 진여법신 · 여래장과 맞닿아

[기조발표] 한마음을 요체로 한 대행선에 관하여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

한마음을 실체란 비판 행위는
법신 · 보신 · 응신 삼신설 몰이해
대행선은 법성종 기반한 '선종'

대행 선사(1927~2012)가 깨달은 한마음(ekacitta, 一心)은 진여 법신(tathat¤vadhamak¤vya, 眞如 法身)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음은 진리이고, 불성 · 여래장이며, 법계이고, 진공묘유이다.

한마음은, 너무나 커서 겉이 없는가 하면, 너무나 작아서 속이 없다. 너무나 높아서 끝이 없는가 하면, 너무나 깊어서 밑이 없다. 한마음은 유와 무, 유루와 무루, 유위법과 무위법, 속제와 진제, 윤회(sa¸sa¤ra, 輪廻)와 니르와나(nirv¤¸a, 涅槃), 번뇌(kle¶a, 煩惱)와 보디(bodhi, 깨달음), 무명과 진여, 차안 과 피안, 지옥과 극락을 걸림 없이 넘나드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애자재이다.

한마음의 진리를 깨달은 대행 선사는 한국이 낳은 진인(眞人)이다. "태어남에 따라서 귀한 사람이 되거나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까르마(karma, 業)를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샤끼야무니 붓다의 말씀처럼, 대행 선사는 그의 삶이 진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주창한 선을 대행선(大行禪)이라고 부른다.

한마음은 형상이 없어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시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우주를 끌고 다니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것이다. 사람 뿐 아니라 모든 만물만생은 본래 하나로 연결된 생명의 실상이자 한마음의 작용이다.

그렇다고 대행 선사가 한마음을 실체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삼천대천세계가 무아이고 공이므로, 논리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현상계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행 선사의 한마음을 실체라고 비판하는 것은, 법신 · 보신 · 응신의 삼신설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대행 선사는 주인공을 자성, 불성(buddhadh¤tu 佛性), 여래장(tath¤gatagarbha, 如來藏), 진여, 아빠(내면의 본래자성불), 심주, 심봉, 물건, 본래면목, 본래무일물, 아미타불, 하느님, 나의 님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지만,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가명무실(假名無實)일 뿐이며, 한마음 주인공이 자신을 이끄는 '참 나'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한마음을 사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여래장사상이며,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한 경전(經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논리적 · 조직적 · 체계적 · 철학적 · 종교적인 것을 들자면, 그것은 단연코 〈대승기신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승기신론〉은, 한마음을 주체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중생의 본바탕을 진여 법신이란 전제 아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디 중생의 바탕이 붓다이므로 밖에서 붓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붓다임을 굳게 믿고, 자신의 내면을 관하라는 대행선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불교의 문화권에 들어 있는 한국불교는 소승불교를 인천교라고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전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승불교를 크게 법성종(法性宗)과 법상종(法相宗)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담론을 전개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다.

전자는 천태종 · 삼론종 · 화엄종 · 선종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는 아비다르마의 소승불교와 유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판별하면, 대행선은 법성종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한 선종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성종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한 대행선은 인간의 본바탕을 붓다와 같은 한마음으로 본다. 한마음을 진여 · 불성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붓다라는 논리이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붓다를 찾으러 떠돌아다니지 말고 네 안에서 붓다를 찾으라는 것이다. 네가 붓다인데 왜 또 붓다를 찾으려고 헤매느냐? 네 안의 한마음, 바로 그것이 네가 찾는 붓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행선이다.

대행 선사, 혁신불교를 보인 선각자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

本紙 창간, 당시엔 놀라움 자체
거사 · 청년 등 신행 소외자 품어
혁신불교 내보이며 대중화 성공

[주제발표] 대행 선사의 행적에 나타난 혁신불교

필자는 20년간 한국의 근현대 고승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성과물을 학계에 보고한 바가 있다. 근현대 고승을 연구하였던 배경하에서 필자는 본 고찰에서 대행 선사의 행적을 요약하고 그를 통해 나타난 '혁신불교'의 정체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대행 선사의 활동은 1970~2000년대이다. 대행 선사의 활동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된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1971년부터 대한불교회관을 한마음선원으로 개칭하기 이전 단계이다. 이 때는 원주 상원사의 불사(1960년대)를 마감하고, 안양으로 이전하여 기반 조성을 한 단계이다. 대행 선사와 한마음선원이 초창기 단계로 불교 외곽에서 고독하게 터전 확보의 작업을 추진하였던 시기로 이해된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1982년 즉 한마음선원으로 전환하고 조계종에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종단 중심부로 진입한 시기이다. 1982년부터 1994년 〈현대불교〉 창간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대행의 포교 활동과 한마음선원이 본격적으로 발전 단계로 진입한 단계이다. 이 기간에는 국내지원, 국외지원의 개설이 개시되었으며, 대행의 활동이 국제적인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선법가 활동, 영탑공원의 가시화는 여타 단체에서 볼 수 없는 특이성이었다.

그런데 한마음선원의 일면에는 대행의 '신비성(치병)'에 대한 지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신종교, 신종단, 급성장하는 교단에는 이런 신비성이 늘상 있어왔다. 필자가 보건대 한마음선원도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 · 해석을 하여서 그를 보편적인 역사로 활용하였던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94년 〈현대불교〉의 창간부터 입적하였던 2012년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대행과 한마음선원이 불교계 중심부에 완전 진입하여 정상에 섰던 기간이라 하겠다. 그 어떤 사찰과 단체도 행하지 못하였던 불교계의 신문을 설립, 경영한 주체는 누구이었는가? 더욱이 비구니 스님이 신문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리고 대행 선사가 추진한 거사법회, 청년법회, 불교방송국 등은 불교계에서는 감히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신선한 불사였다. 소외자, 방관자였던 거사와 청년을 주제로 법회를 하였음은 CEO적인 마인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같은 혁신적 · 파격적 · 특별한 시도는 그 자체가 혁신불교였다.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고, 대중의 심성을 고려한 불법 생활화의 구현이었던 것이다. 이런 혁신적인 노선, 실천 하에서 거사와 청년층의 수희동참을 이끌어내었고, 그것이 한마음선원 발전의 강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런 성격은 한마음봉사단 발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런 사업은 요컨대 발상의 전환과 다른 고승이 행하지 않는 독특한 설명법을 통해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교단을 구축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비주류에서 주류로, 소외 계층을 끌어안고 불사가 성공하게 된 그 당대(1970~2000; 30년)의 일반사, 불교사 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대행의 불사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 당대 불교와 종단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행보, 노선을 가지 못하였는데 그 당위의 노선을 대행 선사는 걸어갔고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불교를 진정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손을 내민 사업이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한마음선원이 출범하여 성장하고, 독자화에 성공한 것에는 그 당시 불교계가 처한 내외의 여건을 극복한 것이라고 본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